

모든 얇은 그림자의 세계이다

| 월인 |

애씀을 벗어나 증생도 부처도 모두 개념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밟고 서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손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지금껏 모든 것을 손으로 잡아서 얻고, 경험하고, 느끼고, 알았듯이 같은 방식으로 땅도 손으로 잡으려고 해왔어요. 그런데 거대한 땅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손이 땅 위에 놓여있지요.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저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마음속 그림자의 세계를 통한 앎

지금껏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느끼는 것은 모두 마음의 상相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그림자, 즉 상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고 반응합니다. 그 지렁이의 마음속에는 상相이 없습니다. 지렁이는 단지 반응할 뿐이에요. 우리도 쾌快와 불쾌不快의 반응을 합니다. 누가 때리면 아프고 싫어하고 불쾌합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면 기분이 좋고 유쾌해요.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극에 대한 본능적 반응을 넘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쾌와 불쾌를 ‘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마음속 그림자의 세계를 통해 압니다. ‘안다’는 것은 실제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경험하는 것을 예전에 경험해본 마음의 그림자와 비교해서 “아, 그래. 이게 바로 기분 좋음이야.” 하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지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의 세계가 본질에는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의 세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로는 본질, 우리 의식의 근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림자가 의식의 근원 위에 떠도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을, 현상을 통해 발견하거나 잡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본질은 결코 그림자, 상相이 아니기에 마음의 상相으로 잡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무유능설無有能說의 뜻입니다.

세 번째, 가히 설명할 만한 것도 없다(無有可說)고 한 것은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설명은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경집이야”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대상’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의 근본은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만한 것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모든 마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나와 대상의 근본적인 분열을 기반으로 합니다. 분열은 기본적으로 분별(分別)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나’, 저기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념에 의한 분별이고 근본적인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알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각(知覺)은 기본적으로, 망념에 의한 분별에 기초한 의타성을 통해, 생각의 네트워크가 지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마음의 대상은 근본적으로 ‘허공의 꽃’과 같다고 원효는 말했습니다.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병난 사람에게만 보이는 허공의 꽃과 같습니다. 내 눈이 잘못되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만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설명할 만한 ‘무엇’은 다 대상인데 근원은 결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만한 것도 없다(無有可說)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문구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생각되기는 하나(雖念)’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니, 공중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離執着於空). 리집착어유(離執着於有는 ‘뭔가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떠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공중에서도 떠나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유(有)에도 집착하지 않고 떠나

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것이다(I am That).”라고 얘기하죠. “본질을 찾으려 떠날 필요 없이 이미 당신은 그것이다, 이미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이미 그것인데 무엇을 더 할 게 있겠어?”라며 탐구를 회피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심無心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무기력해지거나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공손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기공無記空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손, 텅 빔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수행의 체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원론一元論, 이원론二元論, 불이론不二論의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부처다, 다만 알아채지 못한 부처일 뿐이다, 중생은 아직 자신이 부처인지 모르는 부처일 뿐이다.”라는 것이 바로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일원론입니다. 둘째, 이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라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며 애쓰죠. 애쓰다는 것은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애쓰는 겁니다. 부처와 부처가 안 된 사람이 있고, 따라서 부처가 되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셋째,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내가 곧 부처임을 발견하게 되면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하나도 아니구나. 중생과 부처는 원래 없었어.” 하고 알게 되는 불이론不二論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중생과 부처라는 것을 나누는 자체가 개념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이었다가 깨달은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중생과 부처의 나눔 자체가 마음속의 일이었고 개념일 뿐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개념을 떠날 때만이 드디어 본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개념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이 본질 위에

선을 그어놓고 이름 붙여 놓은 그림자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無能念)’는 실제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으로 “근원이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유有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離執着於有). 뭔가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니 공空, 즉 무無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유有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니 참 애매하죠? 우리의 의식은 있거나 없거나 이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없지 않으면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있는 게 아니라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요. 유有 아니면 무無, 무無 아니면 유有. 그럼 어찌란 말일까요? 유有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거나 도달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을 욕구의 대상, 추구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중생은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애써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 움직여서 뭔가 시도하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 말을 믿고 수행의 길에 올라서고 나면 “도달해야 할 그것은 욕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너는 그것이니 발견만 하라”고 말합니다. 욕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탐심貪心으로, 욕심慾心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을 수 있는 무엇이라면 그것은 이미 내가 아니라는 뜻이 짝아요. 수많은 성인들은 “당신은 이미 그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아직

부처가 아닌 것 같죠? 그래도 “나는 아직 아니야. 뭔가 답답해.” 그 답답해하는 마음 밑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나와 대상으로 나눠놓고 “나는 아직 저것이 아니야”하는 그 마음 작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세요. 나와 대상으로 나누는 마음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과정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눠놓고, 내가 뭔가 되려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과정 속에 생명 에너지가 폭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과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마음의 과정을 명확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 해 왔습니다. ‘나와 대상의 분열’이 가장 기본적인 작용이고, 마음이 그렇게 ‘나와 대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지각하고, 알고, 느낀다는 모든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마음의 현상이 현상일 뿐임을 알 때’ 자연스럽게 현상에서 벗어난다고 말입니다.¹⁾ 현상을 떠나있거나 경험하는 누군가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이 현상일 뿐임을 본다는 것은, 마음의 현상 속에 에너지가 빠져 들어가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인 에너지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올까요? 특별히 빠져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머무르려는 에너지의 자동 패턴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어질까요? 현상으로서의 ‘나’가 ‘나 자신도 하나의 마음작용’임을 볼 때, 저절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1) 그럼 어떻게 현상을 현상으로 볼 것인가? 생각과 말 이전에 있는 ‘느낌’을 발견하면, 이 느낌들을 통해 모든 마음의 현상들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알아챌 수 있다.

마음의 구조를 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컴퓨터 속의 회로구성을 보라고 말해주는데 자꾸 마우스를
움직여서 회로를 그렸다 지우고 반복하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회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라고 하는데,
모니터에 회로를 그리고 있는 식이에요

도 머물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구조를 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컴퓨터 속의 회로구성을 보라고 말해주는데 여러분은 자꾸 마우스를 움직여서 회로를 그렸다 지우고 반복하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회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라고 하는데, 모니터에 회로를 그리고 있는 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얻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밑바탕에 “나는 아직 저게 아니야”라는 분열이 있고 그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얻고 잃는다’가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 헤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유有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無能念)라는 뜻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와 너로 나누는 이원론二元論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히 생각할 만한 것도 없음(無可念)’은 나와 대상이라는 분열된 개념을 떠나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몰라, 나는 아직 안 됐다”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해요. 그러한 마음의 과정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불이론不二論으로 가는 거죠. 불이론不二論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그럼 하나란 뜻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은 이미 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불이론은 이미 나와 대상의 분열된 개념을 떠나있습니다. 생각할 만한 것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집착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집착은 ‘나’의 의도에서 시작된다

모든 집착은 ‘나’가 하는 것입니다. 얻으려 하는 것도 ‘나’고, 떠나려는 것도 ‘나’고, 생각을 내려놓으려는 것도 ‘나’입니다. 그 모든 의도를 가진 것이 ‘나’죠. 그 ‘나’는 왜 일어납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감각感覺TM(분별없는 감각만 있는 상태)으로 들어가면 어떤가요? 감지感知TM(맨 느낌)까지는 ‘나와 대상’이 있어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지만, 감각으로 들어가면 점차 ‘나’란 것이 잘 안 느껴지고 결국은 사라지죠. 감각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뭘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와 대상으로 나뉘지지 않은 순간에 한 행동은 나중에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좀 전에 무언가를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와 대상으로 분열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모든 기억은 분열을 기반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모든 집착은 바로 ‘나’가 하고 있고, 그 ‘나’는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임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의 마음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중도관에 들어선 겁니다. 공췌에서도 떠나고 유有에서도 떠난 거죠. 근본의 세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음마저 떠나있다, 즉 개념을 떠나 있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개념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떠나고 마음의 상相을 떠나면 어떻게 생각이란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라는 성城은 개념이

라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블록 없이 어떻게 생각의 성을 쌓을 수 있겠어요? 개념을 떠나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언어야 할 대상도 없고, 얻을 ‘나’도 없고, 자유로워져야 할 ‘나’도 없고, 구속된 ‘나’도 없는데 누가 자유로워지고 누가 구속되어 있겠어요? 그런 건 모두 개념 속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처음 질문이 뭐였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야 정관正觀에 드느냐?’였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세 가지 길을 따라갑니다. 첫째, 생각되기는 한다(공췌이 아니다). 둘째,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유有가 아니다). 셋째, 생각할 만한 것도 아니다(개념을 떠나있다). 이런 순서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대승기신론 기초에서 말한 일원론一元論, 이원론二元論, 불이론不二論의 체계와 같은 것인데,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을 믿고 수용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일원론입니다. 수행할 때는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데 이것이 이원론에 빠진 상태로, 둘이 둘이 아님을 체화하기 위한 애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인 이원론의 오류입니다.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과정을 알아채야 해요.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원론에 빠져 부처와 중생이 있다고 믿고, 부처가 되면 달라진다고 믿는 겁니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중생과 부처가 있다는 그 마음의 분별성을 떠나게 되고, 개념을 떠나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떠나려 하는’ 의도가 없이 마음이 움직이는 작용과정을 ‘알아챔’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결코 어떤 ‘의도’에 기반한 마음의 움직임으로는 불가

능하지요. 모든 의도는 일종의 ‘회로’ 속에 빠져든 마음이며, 그것은 마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작용’에 관심을 두어야지 ‘마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 깨침으로 가면 ‘생멸심이 곧 진여심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든 분열, 분별의 세계가 생멸심인데 그것이 진여심, 곧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고, 보리가 곧 번뇌라는 말이죠. 번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론으로 들어가죠. 즉 애씀을 벗어나 중생도 부처도 모두 개념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땅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늘 밟고 서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손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지금껏 모든 것을 손으로 잡아서 얻고, 경험하고, 느끼고, 알았듯이 같은 방식으로 땅도 손으로 잡으려고 해왔어요. 그런데 거대한 땅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손이 땅 위에 놓여있지요. 아무리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땅을 어떻게 발견해야 합니까? 툭툭 뛰어보는 거죠. “아 내가 땅 위에 있구나. 이게 땅 위에 있는 거야”라고 알아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아픔이 일어나고,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서 마음이 이렇게 현상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느낌(感知)과 생각,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땅에 경계선을 긋듯이 마음에 경계를 그림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야 한다고 했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슬픔으로 가득 차면 내가 슬픈 줄 알죠?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차면 내가 기쁜 줄 알고, 내가 자만심으로 가득 차면 내가 자만심인 줄 알아요. 자만심을 느낀다고 나쁠 것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느낌’임을 알아채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

놓을 수 있으니까요.(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신뢰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시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불二的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